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인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몇몇 부분만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

**내가 켄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비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16:1)**

뵈비는 여집사이고, 켄그레아는 고린도시의 항만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만났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남성 제일주의자들에게는 이 여성도가 교회를 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나, 그는 충성스러운 여집사였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찌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16:2)**

뵈비 집사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추천장을 써서 그 여집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 뿐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16:3-4)**

지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들과 천막장사를 하는 업이 같았기 때문에,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고 팔아 고린도에 있는 동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동행자들의 숙식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린도에서 서로 만나게 된 것은 이 부부가 로마에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핍박으로 인하여 고린도로 피신하여 오게 된 것이 계기입니다. 로마에서도 천막장사를 한 것이 분명하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가기 전에, 다시 에베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에 아볼로라는 성경의 말씀에 능한 자가 에베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조용히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완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다시 만나 그들과 함께 주님을 섬겼습니다. 지금은 이 부부가 다시 로마로 가서, 그곳에 있을 때에, 바울이 로마서신을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아주 가까운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으며, 바울이 그들이 로마에 있을 때에, 이 서신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온 사실이 마지막 장소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이사를 다니면서, 특히 에베소에서는 자기 집을 열어놓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집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으며, 그 부부는 특별한 은혜로운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나는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들을 만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6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16:5-6)**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16:7)**

지금 흥미로운 사실은 유니아는 여자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그를 사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사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사도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싫어하는 자들이 다른 의미로도 번역한 것을 보았는데, “나의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로서 알려져 있고, 아니면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라고 하여 그들이 사도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나타내 버렸습니다. ‘오, 안될 말이지! 여자가 사도가 될 수 없지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라는 의도는 베드로와 요한을 두고 말한다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도들도 이 여성도에게 문안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헬라 말을 조금 굽혀서 억지로 해석을 한 것인데, 실제로 헬라 원어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면, 유니아는 참으로 사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인사하려고 하는 잘 알려진 사도라는 말입니다. 그가 실제로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자입니다. 이 여성도에 대한 기록을 옳게 찾아내는 일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때에 로마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나, 현재 우리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16:13)**

다른 루포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는데, 아마 같은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함을 받은 구레노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인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루포라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16 사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마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율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16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16:14-16)**

다른 지방에서 다르게 문안하는 습관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주 전에 멕시코에 갔었는데, 그 곳에서는 사람들이 인사할 때에, 악수하고 껴안고 다시금 두 번째 악수를 합니다. 당신들이 멕시코에 가서 사람들과 인사할 때는 악수하고, 껴안고, 다시금 악수를 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인사할 때에 양쪽 뺨에다 키스를 합니다. 그들은 키스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로마에서는 키스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키스로 서로 문안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당신들에게 문안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16:17)**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상한 일을 하도록 권장하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이상한 일들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장해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떤 일을 당신에게 주셔서 온 교회에게 그것을 강요한다면, 나는 그것을 받은 당신이 먼저 하나님과 깊고 가까운 관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가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관찰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영적인 통찰력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며, 사랑으로 행하는데, 유익한지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진리가 당신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가서 ‘형제여,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개인 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난 바가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강요한다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동기가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러한 특이한 경험을 가진 자와 같은 경험을 꼭 가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상한 경험을 한 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도록 강조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기본적인 바른 성경교리에 반대하는 자들을’ 지목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나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주신 계시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필요한 말씀을 모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직 내가 경험치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경밖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성경에 없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솔직히 당신들에게 고백한다면, 성경 밖의 경험은 내가 아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성경 밖의 경험에 대해서는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찾아와, 놀란 눈으로 말하기를, ‘지난 밤 새벽 세시 경에 나의 침대 앞에 밝은 광채를 발하는 것이 자는 나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당신이 누구냐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말하며,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고, 선언만 하면 된다’ 고 하지를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나는 그러한 것에 흥미가 없습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나는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지목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16:18상)**

목회로부터 지워지는 것으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지워지는 의무입니다. 교회로부터 봉급을 받고 사는 주의 종은 그 생활이 아주 검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 유행하는 비싼 옷을 사 입는다든가, 호화로운 차를 탄다든가, 호화롭고 비싼 물건들 이것 저것들을 마구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써 화려하게 살지 않고, 검소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목회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보다 실제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자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16:18하)**

TV 목회를 하는 자들을 보면, 그들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음, 듣기 좋은 말, 유모어가 있는 말을 재미있게 하기는 하지만, 강조하는 면이 잘못 되었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16:19)**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된다는 것은 좋은 법칙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악에 대해서는 미련한 것이 좋습니다. 악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악에 대해서는 단순한 마음으로 미련하게 됩니다.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신학생들이 스트립쇼를 하는 극장에 가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하려면, 사람들이 가는 곳에 모두 가보고 이해한 후에야, 그것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애들아, 그것은 바보짓이야! 악에 대한 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이해한 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선한 일에 관해서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씀은 좋은 교훈입니다. 악에 대해서 어리석고, 순진한 마음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16:20)**

바울이 이 로마 서신을 끝내기를 아주 아쉬워하면서, 여기서 “아멘” 이란 말을 두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당신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16:22)**

여기서 바울을 위해 대서를 하고 있던 “더디오가 주안에서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내가 친필로 이렇게 큰 글자로 너희들에게 기록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자신이 직접 기록하였으나, 로마서는 더디오가 대서를 한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16:23상)**

가이오는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침례를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도 침례를 주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하노라” 고 말했다기 때문입니다

**나와 온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4 없 음 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16:23-25)**

이방인들에게 내리신 은혜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비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며,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16:26)**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얻는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16:27)**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바울의 로마 서신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서를 공부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아주 흥미 진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교회는 아주 혼란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에게 보낸 대부분의 말씀이 교회에서 많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주며, 교훈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어 보면,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교정해 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많은 교훈이 나오며,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과 바르게 함이 많이 나오며, 열심히 읽고 연구하면, 당신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좇아 살아가는데, 많은 지식과 교훈을 얻게 되며, 여러분의 신앙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사랑 가운데 항상 지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주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기를 기원하며, 성령 안에서 걸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